

韓國의 宮闕建築

金 東 賢

(文化財研究所 / 保存科學研究室長)

궁궐이란 古代國家로부터 近世君主國家에 이르기까지 국가통치의 최고 주권자인 帝王, 또는 領主가 政務를 행하던 청사와 그들이 거주하던 주택 및 그에 따른 부속건물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궁궐이란 용어는 궁과 궐의 합성어인데 궁이란 天子나 帝王, 王族들이 살던 규모가 큰 건물을 일컫는 말이며, 궐이란 原來 궁 앞의 門 좌우에 設置되었던 望樓와 같은 建物을 지칭한 것으로 帝王이 살고 있던 특정구역에는 궁에 소속된 건물과 궐이란 건축물이 併存하고 있어 궁궐이라 일컫게 되었다.

궁궐은 궁전, 궁성, 궁실 등으로도 불리우며 이들 用語는 건축적인 意義로는 같은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辭源〉에 보면 궁궐은 「같은 말로 궁궐이라 하고 궁문 밖에는 두개의 궐이 있고 옛날에는 궁궐이라 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함에는 궁궐이라 하고 그 外觀을 말함에는 궁궐이라 한다. (猶言宮殿, 宮門外有兩闕, 古稱宮闕, 又就其內容則曰宮殿, 就其外觀言之則曰宮闕)」라고 정의하였다.

궁궐건축은 支配階級인 帝王이나 領主의 政務 및 일상생활에 최적인 專有空間이 되도록 當代를 代表할 수 있는 上級の 建築的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 궁궐건축은 기능별로 政事를 위한 政務建築空間과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건축공간, 그리고 휴식과 정서를 위한 庭苑空間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 세 공간구역 설정은 시대와 地勢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

으나 일반적으로 한 宮牆(궁궐을 둘러싼 담) 구역 안에서 유기적으로 배치시켜 動線上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배치형식은 고대로부터 近世에 이르기까지 前朝後寢의 配置形式이 通例로 되었으며 이러한 배치법은 中國이나 日本의 궁궐배치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궁궐의 구성요소에는 궁궐을 둘러싼 方形이나 長方形의 外壁(또는 外牆) 설비가 있었고 이 外牆은 높고 넓은 石牆이나 土牆으로 둘러쳐져 있으며 外壁四周에는 궁문을 반드시 설치하였다.

궁궐은 政務를 위한 건축군을 전면 中央에 배치시켜 正殿을 중심건물로 하여 그 주위에 正方形 또는 長方形의 廻廊을 세우고 四周 廻廊에는 각각 문을 설치하였고 이를 政務建築群 後便에는 內殿과 寢殿 등을 두고 이곳 역시 廻廊으로 둘러싸는 것이 일반적인 배치형식이었다.

後苑, 即 정원공간은 樓閣, 亭榭 등의 건물과 池塘, 造山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위치는 궁궐의 동쪽이나 서쪽, 혹은 북쪽에 자리잡게 하여 일상생활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통례이었다.

우리나라의 궁궐건축은 조선시대 이후의 地上建築遺構가 現存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유감이다. 그러나 文獻에 나타난 궁궐건축에 관한 자료와 그들 遺址에서 밝혀진 조사 내용을 통해 三國時代로부터 고려시대에 걸친 궁궐건축의 실상을

일부 알 수 있어 다행이다.

고구려시대의 궁궐건축은 만주 通溝 國內城과 平壤의 安鶴宮 遺址에서 그 옛모습을 찾아 볼 수 있으나 국내성의 경우에는 一部 礎石이나 瓦片만으로는 宮址內容을 확실히 알 수 없고 평양의 안학궁은 近年 發掘된 조사내용으로 그 배치형식을 알 수 있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고구려 궁궐에 대한 기사가 시조 東明聖王, 瑠璃王, 烽上王, 廣開土王, 平原王條에 보이고 있으며, 그 내용은 궁궐과 離宮을 건설하거나 증축, 수리하였다는 기록이고 烽上王條에는 특히 「입금이란 百姓들이 우러러보는 바니 宮殿이 莊嚴하고 화려하지 못하면 어떻게 위엄을 보일 수 있겠는가(君子百姓之所瞻望也, 宮室不壯麗, 無以示威重)」라는 구절 등이 있어 궁궐의 규모와 내용이 장엄하고 화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평양의 안학궁은 발굴조사결과 궁궐범위와 殿堂 및 廻廊, 門址 등의 배치형식이 밝혀졌으며 건물수도 52棟이나 확인되었다. 안학궁은 평양 大城山 기슭에 위치한 궁궐로 남북 및東西길이 약 620m나 되는 方形 宮城을 돌리고 그 안에 남북방향의 3개축을 기준으로 건물을 배치하였다. 이 3개의 남북축 중 중심에 놓인 중심축에는 남쪽으로부터 外殿, 內殿, 寢殿 등의 구역을 차례로 배치하고 외전의 동쪽과 서쪽에는 각각 같은 규모의 東·西殿을 둔 중심축 기준의 완전 대칭형식으로 되었다. 또한 궁궐의 東北쪽에는 별도의 동궁으로 생

각되는 殿堂이 한 구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동궁 앞에는 정원이 마련되고 寢殿 後便 북쪽에는 人工의 조산을 만들어 후원 시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의 궁궐은 <三國史記>에 의하면 紀元前 4年(溫祚王 15年) 漢都에 세웠던 신궁이 「검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았다. (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기사를 보면 초창기의 궁궐건축은 소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辰斯王 7년에 궁전을 수리하고 연못을 파고 그 속에 산을 만들고 기이한 금수와 草花를 길렀다는 기록을 보면 그 당시 궁궐건축의 화려함과 조경술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熊津(현재의 公州)으로 수도를 옮긴 후 東城王은 궁궐 동쪽에 臨流閣을 지었는데 그 높이가 50여척이 되

움기고 도성안에는 泗泚宮, 望海宮, 皇華宮, 太子宮 등이 있었으나 그 실상은 현재 알 수 없다.

그러나 <三國史記>에 의하면 634年(武王35年) 궁궐 남쪽에 땅을 파고 20余里의 거리에서 물을 끌어들이고 연못 연안에는 나무를 심고 못 안에는 섬을 만들었다는 기록 등을 통해 백제의 궁궐건축도 고구려 궁궐건축에 뒤떨어지지 않는 권위와 莊嚴, 그리고 豪奢함을 갖춘 궁궐건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신라의 궁궐건축은 朴赫居世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궁궐을 남산 西麓·高墟村에 만들고 기원전 37年(赫居世 21年)에는 金城안에 궁궐을 지었다고 한다. 그리고 101年(婆娑王 32年)에는 月城을 만들고 궁궐이 그곳으로 옮겨졌으며 249年(沾解王 3年)에는 남당이라는 政庁(政事를 보는

禮式)를 받았다고 <三國史記>에서 전하고 있어 국가의 중요한 儀式行事를 하던 궁궐건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당시의 유적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통일신라시대의 궁궐건축은 3국을 통일한 통일국가답게 더욱 隆盛發展되었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674年(文武王 14年) 궁내에 못을 파고 造山하여 화초를 심고 진기한 짐승을 길렀다하고 679년에는 궁궐을 重修(크게 고쳐지움)하였는데 매우 莊麗하였다고 하며 궁궐건축의 이름을 보면 臨海殿(674年) 右司祿館(681年) 左司祿館(677年) 講武殿(677年) 韋禮殿(687年) 永昌宮(727年) 瑞蘭殿(800年) 東宮萬壽房(804年) 平議殿(811年) 月池宮(822年) 月正宮, 內黃殿, 珎石宮, 古奈宮 등이 있고 門樓建築等으로는 臨海門, 仁化門, 歸正門, 玄德門, 武平門, 遵禮門, 月上樓, 望恩樓, 鳴鶴樓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궁궐건축은 현존하지 않으며 遺址로서 확인된 것을 1975年 발굴조사된 雁鴨池 周邊 유적뿐이다. 안압지 주변 建物址에서는 총 30個棟의 建物址가 확인되었다 建物의 배치는 남북주축을 기준으로 좌우대칭 배치형식인데 연못변의 建物址는 연못과의 조화를 위해 다소 대칭을 변형시키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으나 궁궐배치의 좌우대칭 기준형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고려시대의 궁궐건축은 개성 滿月臺에 남아있는 궁궐터의 礎石과 石築遺構 자료를 기초로하여 문헌과 비교해 대략의 궁궐형식을 알 수 있다.

<高麗圖經>에 의하면 궁궐은 崑山에 의지하여 고목이 우거져 있어 遠景이 嶽廟나 山寺에 가까운 감이 있고 또한 담담한 아름다움이 있으며 궁성 주위에는 13개의 문이 있어 廣化門이 正東에 위치하여 긴 거리와 통했고, 殿門은 15개소인데 神鳳門이 가장 화려하다고 하였으며 外殿의 中心建物인 會慶殿을 비롯하여 長和殿, 元德殿, 乾德殿, 長慶殿, 長齡殿, 延英殿閣 등을 설명하고 있다. 만월대의 궁궐 특징은 평지가 아닌 丘陵地帶에 건물을 배치한 점이며 궁궐의 중심이 되는 外殿, 內殿, 寢殿 등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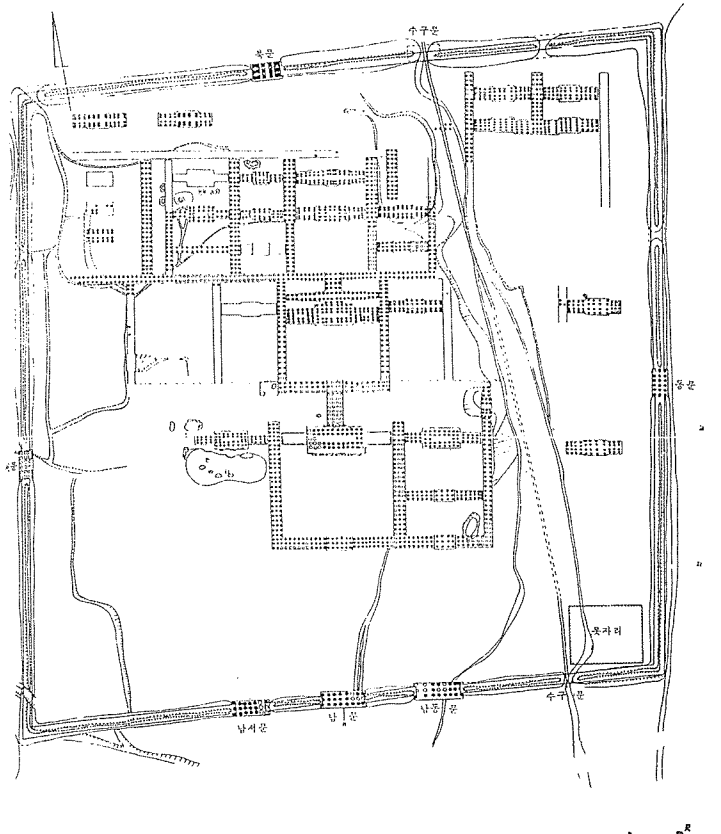


圖 1: 평양 安鶴宮址(고구려시대)

었다고 하며 연못을 파고 기이한 새들을 기르게 하므로 신하들이 상소로 항의하였으나 왕은 회답하지 않고 오히려 궁문을 닫기까지 하였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궁궐이 화려하고 奢侈스러웠는지 알 수 있다. 또한 聖王 16年에는 泗泚(현재의 扶餘)로 수도를

建物)이 건축되고 585年(眞平王 7年)과 622年(眞平王 44年)에는 大宮, 梁宮을 만든 후 內省(新羅時代 宮을 맡아보던 官庁)을 두어 이들 세개의 궁을 장악하게 하였다.

그 후 651年(眞德王 5年)에는 朝元殿에서 왕이 百官의 賀禮(祝賀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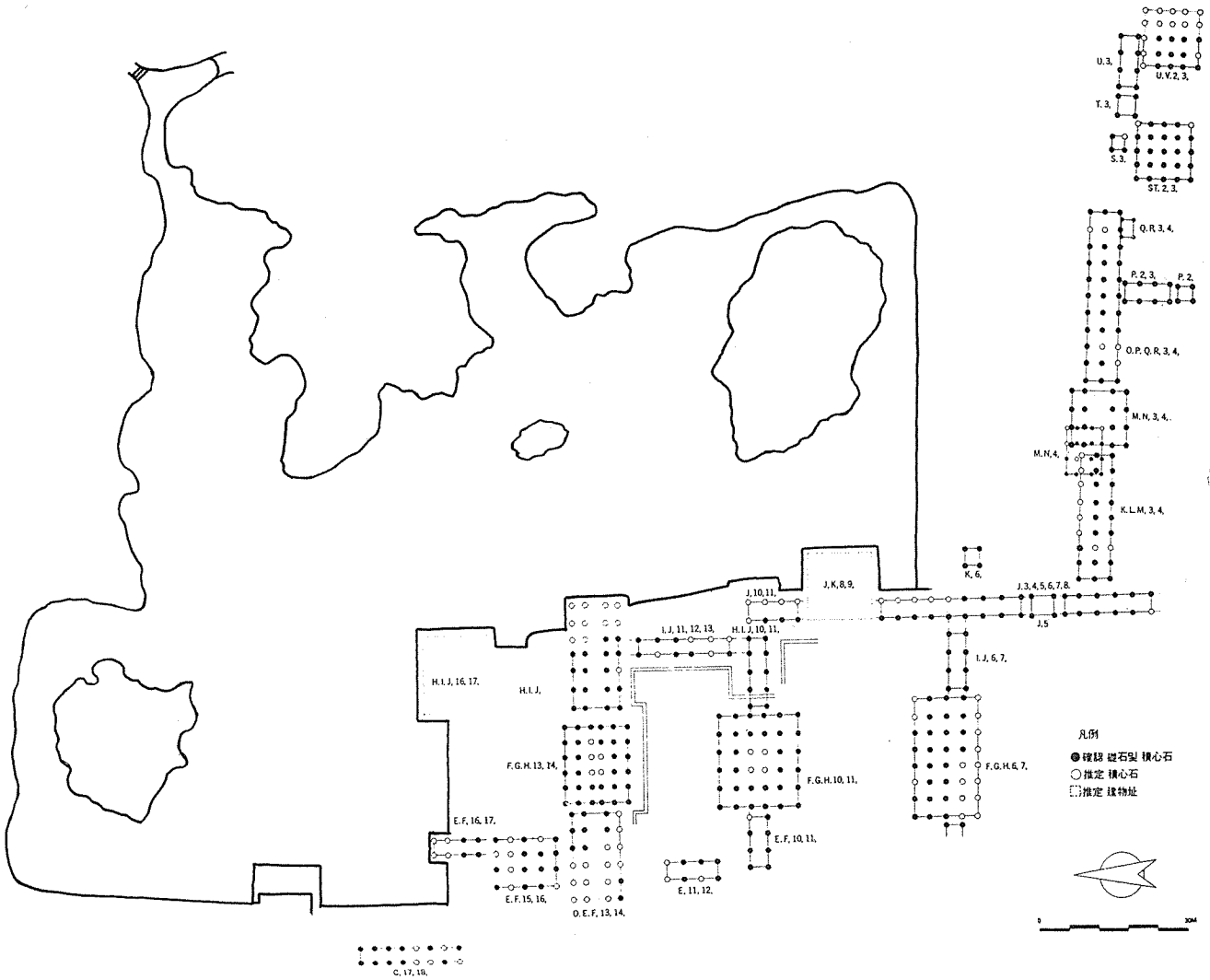


圖 2 : 경주 안압지 주변 建物址 (통일신라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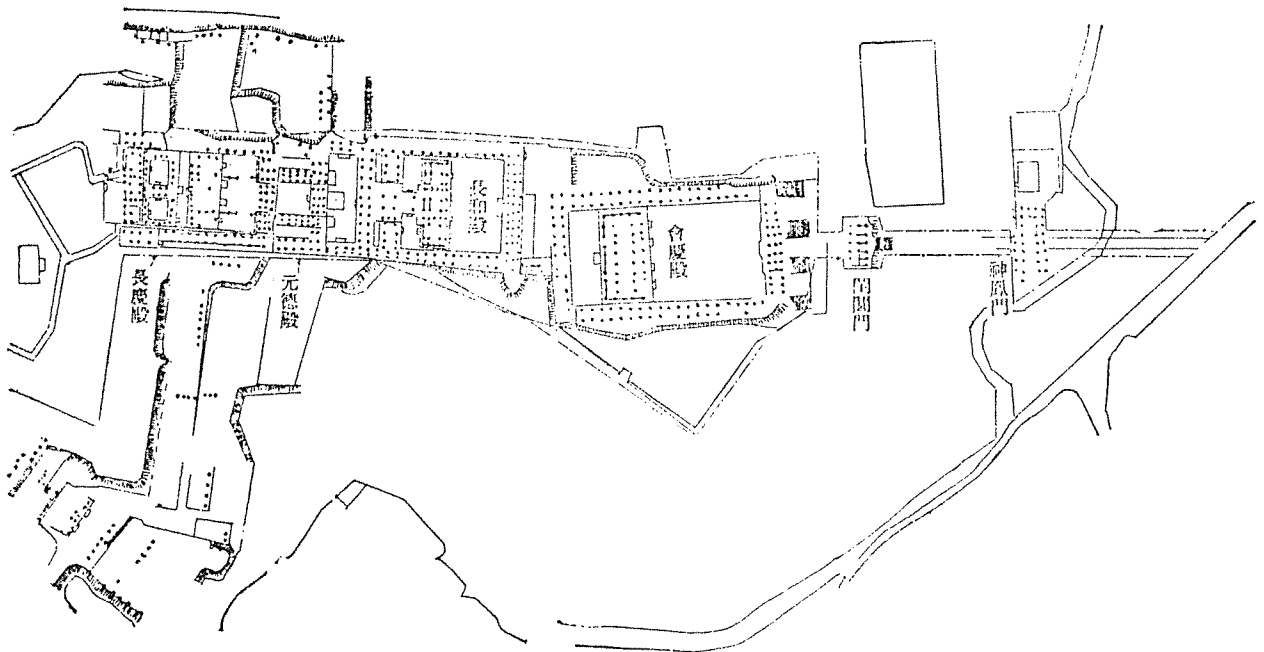


圖 3 : 개성 만월대 宮闕址 (고려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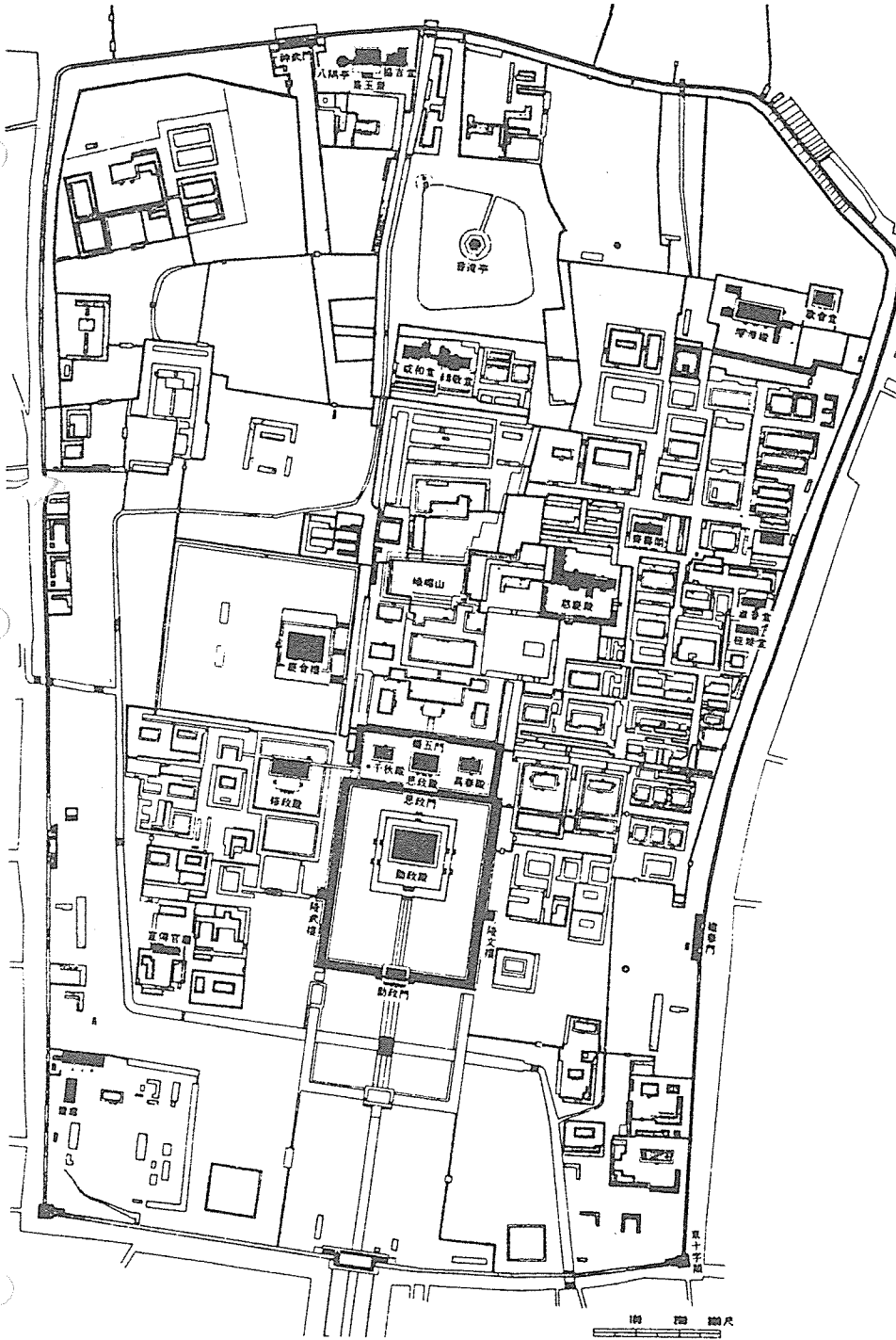


圖 4 : 서울 경복궁(조선시대)

물군이 남북의 동일 중심축에 배치되지 않은 점이다.

즉 會慶殿을 중심으로 한 外殿一廓과 長和殿을 중심으로 한 內殿一廓 및 長和殿 後便의 寢殿一廓이 地形地勢에 맞추어 축을 달리한 점이다.

建築意匠은 건물에 丹青이 되고 銅花(구리로 꽃무늬를 만들어 장식한 金具)로 꾸며져 웅장하려 하였다고 한다. 後苑의 조경도 怪石을 모아 仙山을 만들고 물을 끌어들여 샘과 연못을 만들었으며 名花奇樹를 심어 매우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다. 특히 <高麗史>에 보면 毅宗은 王宮 동쪽에 離宮을 짓고 太平亭, 觀闌亭, 養怡亭, 養和亭 등 樓亭을 짓고 養怡亭에는 靑磁蓋瓦를 덮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능히 당시 궁궐의 화려함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궁궐건축은 대표적인 것이 景福宮, 昌德宮, 昌慶宮, 德壽宮 등이다. 경복궁은 조선시대 궁궐 중 正宮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태조 始創以後 歷代王들의 重修, 改修

로 정비되었으나 궁궐 전체가 壬辰倭亂 때 燒燼되고 현존의 유구들은 高宗 2年 大院君의 영단으로 再建된 왕궁이다. 태조때의 경복궁 중심부 내용은 <太祖實錄>에 의해 건물의規模와 배치내용을 대략 짐작할 수 있는데 현존의 배치형식과 근본적으로 크게 다른 바는 없다.

그러나 궁궐 중심부인 勤政殿 一廓의 규모가 현존의 것보다 좁았었고 건물크기도 약간씩 소규모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존의 경복궁은 궁역이 약 30만평으로 東西 및 남북쪽 주위에 宮牆을 쌓아 전체 평면이 남북방향으로 긴 장방형이며 正南 중앙에 光化門을 두고 동쪽과 서쪽에 建春門과 迎秋門을 세우고 북쪽에는 神武門을 배치하였다. 정남의 광화문을 들어서면서 弘禮門이 있고 永濟橋를 지나 外殿 正門인 勤政門에 다다르며 勤政殿 一廓을 複廊(廻廊의 보간이 두 칸인 廻廊)이 長方形으로 둘러막아 외전공간을 만들었으며 그 내정 북쪽으로 치우쳐 궁궐 正殿인 勤政殿이 남향해서 자리잡고 있다. 이 勤政殿 一廓 後面에는 思政殿區域과 康寧殿, 交泰殿이 자리잡고 있어 광화문으로부터 交泰殿까지의 重要建物이 南北中心軸上에 配置되고 그 左右 一廓들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나 康寧殿 以北의 건물들은 日政期에 헐려 현존하는 것이 없다. 현존하는 건물들은 勤政殿 一廓의 건물들과 思政殿, 修政殿, 慈慶殿, 慶會樓, 千秋殿, 咸和堂, 網敬堂, 香遠亭, 集玉齋 등이며 광화문에서 勤政門에 이르는 궁역에는 日帝殘影인 중앙청건물이 들어서고 <宮闕志>에 보이는 160余 殿閣의 7,300余間 규모는 그 遺址만이 남아 있다. 경복궁의 後苑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어 배치되었는데 그 하나는 궁역 서쪽의 경희루지역이며 다른 한 곳은 香遠亭一帶이다. 경희루지역은 왕실의 권위를 과시한 對外的 정원이며 香遠亭地域은 서민풍의 對內的 정원으로 꾸며졌다.

창덕궁은 조선시대 궁궐 중에서 가장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別宮이다. 1405年(太宗 5年) 離宮으로 創建되고 경복궁의 동쪽에 있다하여 一名 동궐이라고도 하였으며 壬辰倭亂 때 全燒된 것을 1611年(光海君 3年) 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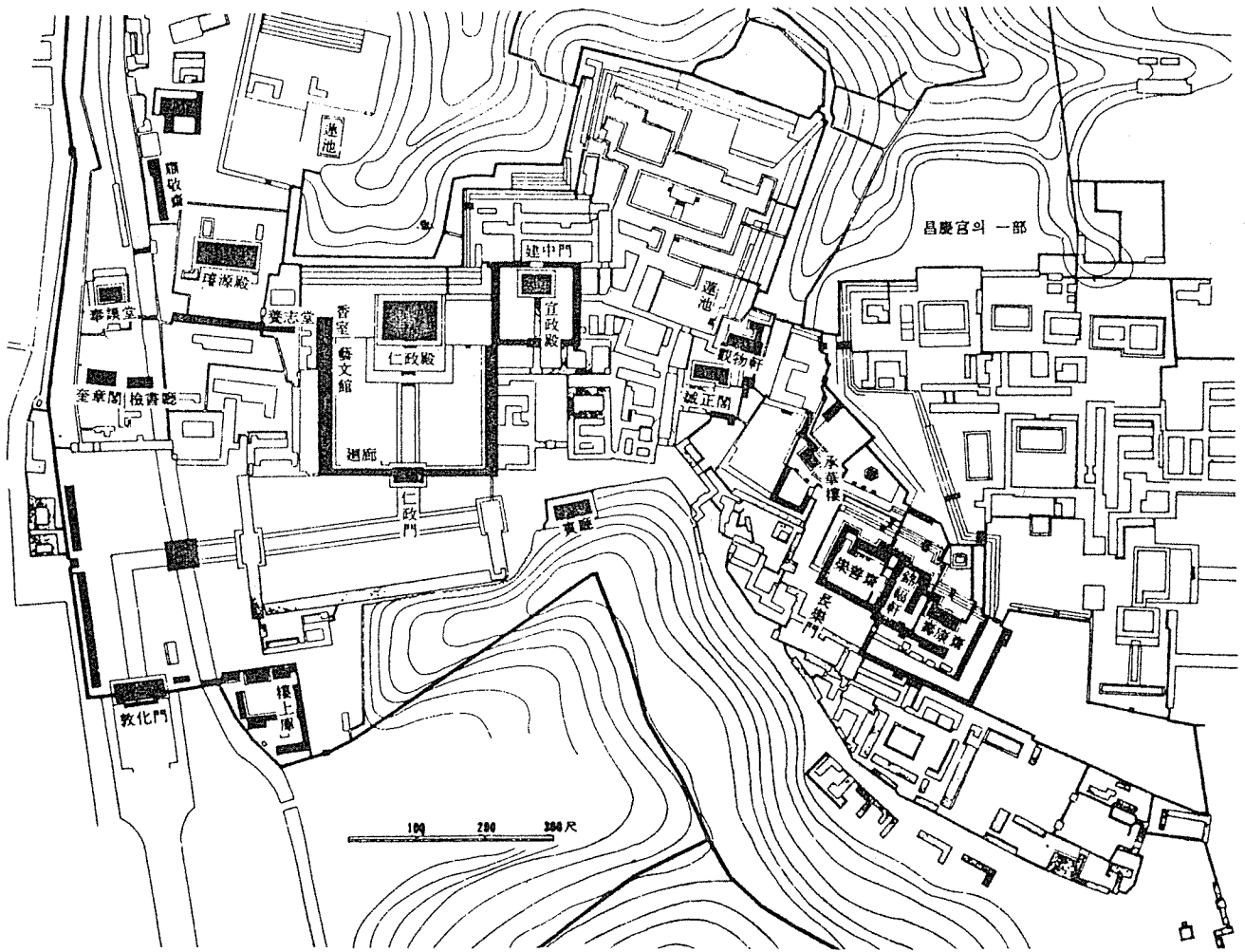


圖 5 : 서울 창덕궁(조선시대)

建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창덕궁은 다른 궁궐과는 대조적으로 自然地勢와 지형에 따라 殿閣들을 배치하고 자연과 인공물을 無理없이 조화시킨 특징을 갖고 있으며 특히 後苑인 秘苑의 樓閣, 亭榭들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워 선경에 가까운 秘境으로 만들어 자연순응의 범칙을 최대한 발휘한 조선시대 궁궐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궁궐 정문인 돈화문을 들어 서면서 동북쪽으로 正殿인 仁政殿이 있고 仁政殿一廊 동서양측에는 非對稱의 宣政殿과 潛源殿을 배치시키고 寢殿은 仁政殿一廊의 중심주축과 다른 副軸

을 만들어 宣政殿 東北쪽에 配置하였다. 그러나 주축과 副軸의 결합과 연결은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동선상의 무리가 없도록 시도되었다.

창덕궁은 1483年(成宗 14年) 고려 壽昌宮터에 세운 궁궐로 王亂때 全燒한 것을 1616年(光海君 8年) 다시 重建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昌慶宮은 正殿인 明政殿一廊이 궁궐 배치의 基本座向인 남향배치가 아닌 東向이라 특이하며 主軸인 동서축보다 남북축이 더욱 길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창경궁 내에는 殿閣이 2,400 余間 있었으나 현존의 건물은 明政殿 및 明政門一廊의 건물과 정문인 흥화

문, 通明殿, 文政殿, 歡慶殿, 養和堂 등이 있다.

덕수궁은 원래 月山大君의 저택이었던 것을 王亂直後 宣祖가 行宮(임금이 거동할 때 일시 머무르는 別宮)으로 사용하였으며 光海君 때에 慶雲宮이라 일시 불렀으나 高宗 때에 궁궐로 사용되고 高宗 讓位 후 德壽宮이라 칭하게 되었다. 宮內에는 正殿인 中和殿을 비롯하여 中和門이 있고 昔御堂, 卽祚堂 등이 남아 있으며 조선시대말에 최초로 洋式建物を 營造하여 전통궁궐에 양식건축을 조화시킨 궁궐로 특징이 었다.

너와내가 막은밀수 자립경제 초석된다